

# 黃鶴樓 관련 李白詩 연구\*

李白詩에서 '黃鶴樓'가 차지하는 文學的 意味에 대한 검토 및 崔顥의 〈黃鶴樓〉시와의 비교

徐榕浚\*\*

## 目 录

1. 序論-李白과 崔顥의 〈黃鶴樓〉시 사이에 생긴 일화
2. 李白詩에 등장하는 黃鶴樓의 의미
3. 崔顥의 〈黃鶴樓〉에 대한 李白의 共感
4. 結論

## 1. 序論-李白과 崔顥의 〈黃鶴樓〉시 사이에 생긴 일화

唐代의 시인 崔顥(704?-754)는 開元 11년(723)에 진사에 급제했다고 한다.<sup>1)</sup> 최호는 당대의 대시인 王維 보다 1년 뒤에 과거에 합격한 것이다. 그러

\* 이 논문은 2015년 7월30일에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연구소 7월 정례발표회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黃鶴樓 관련 李白詩 연구」의 전반부를 논문 투고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래의 발표는 이백시에서 황학루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 다음에 이백의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시를 재해석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이백시에서 황학루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이백시에 담겨있는 이백의 정서를 확인하고 최호의 〈황학루〉시와 이백시를 비교분석해서 이백의 시가 최호의 시의 표절이 아니라 이백의 인생 경력을 통해 변화된 황학루에 대한 그의 인식이 최호의 시의 시상을 차용하여 드러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中語中文學科 講師

1) 安旗는 '마땅히 진사가 되기 전에 〈黃鶴樓〉를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李白年譜』, 安旗, 臺北: 文津出版社, 1985, 26쪽.) 李白의 황학루 관련 한시가 온전히 최호의 〈황학루〉에 영향을 받으려면 최호가 진사가 된 723년 이전에 武漢의 황학루에 올라 고향(최호는 開封 출신이라고 한다) 떠난 나그네의 설움을 깊게 느껴야 하기 때문이

므로 725년에 처음 武漢 지역에 들어와서 그 뒤로 단 한 차례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던 李白과 비교해 과거시험과 관련된 능력은 더 뛰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최호의 관리 생활은 본인의 능력이나 기대에 걸맞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을 전전하다가 天寶 연간(742-755)에 비로소 尙書司勳員外郎이 되었다고 한다. 743년에 의기양양하게 翰林에 들어간 이백과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최호의 시 <황학루>는 아마도 그가 진사에 급제하고도 거의 20여년을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던 723년에서 천보 연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화자는 오랫동안 많은 좌절을 겪은 사람으로 읽혀지며 그래서 740년 이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다.<sup>2)</sup> 최호와 이백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음에도 서로 어떤 직접적인 교류나 간접적인 왕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이런 두 사람에게 최호의 <황학루>시를 둘러싸고 다소 우스꽝스런 사건을 일으킨 유별난 이야기<sup>3)</sup>가 전한다. 이것은 최호의 <황학루>가 얼마나 뛰어나

다. 그러나 <황학루>는 최호의 만년의 걸작으로 공인되다시피 한 작품이며 그 시의 내용 또한 젊은 사람의 감상에서 나올 종류가 아니다. 724년 또는 725년에 장강을 따라 호북지역에 들어온 이백은 726년에는 이미 揚州 일대까지 섭렵하였다.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서라면 이백이 황학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백의 눈앞에 최호의 <황학루>가 걸려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黃鶴樓> 崔顥

昔人已乘黃鶴去，此地空餘黃鶴樓。黃鶴一去不復返，白雲千載空悠悠。晴川歷歷漢陽樹，芳草萋萋鸚鵡洲。日暮鄉關何處是，煙波江上使人愁。

옛사람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났고, 여기엔 텅 비어 황학루만 남았다. 황학은 한 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백운은 천 년 동안 그저 유유히만 남았다. 맑은 내 건너엔 한양의 나무가 또렷하고, 향그런 풀은 앵무주에 가득하다. 해 지는 저녁 어느 곳이 고향인가, 안개 낀 파도는 강가에서 시름겹게 한다.

- 3) 宋의 計有功이 지은 『唐詩紀事』 卷二十一에 있는 <황학루>시의 주에 “세상에 전하기로 이태백이 말하길 ‘눈앞에 풍경에 있어도 말할 수 없으니, 최호가 지은 시가 앞에 있구나’라 하였고 마침내 <등금릉봉황대>시를 지어서 승부를 겨뤘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것 같다. (世傳太白云，眼前有景道不得，崔顥題詩在上頭。遂作鳳凰臺詩以較勝負，恐不然)”라고 하였다. 계유공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으나 나중 사람들은 이야기에 세밀함을 더했다. 元의 辛文房의 『唐才子傳』에는 이백이 최호의 시 때문에 “시

며 그래서 고대부터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sup>4)</sup>이다. 후대로 전해지며 보다 세세하게 완성되어졌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최호의 <황학루>시는 대시인 이백을 완전히 굴복시킨 위대한 작품이다.

시인의 일생이 오직 그의 작품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장소에 가서 그곳에 전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나 글귀 등에 감탄하는 일은 唐詩의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났다. 많은 수량의 회고시나 영사시들은 고대의 인물이나 문학을 창작의 중요한 동기로 삼았다. 그러니 이백이 최호를 오직 작품을 통해서 만난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한 이백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자신의 형상을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백은 황학루에 자기 시를 남기겠다고 석공까지 데리고 갔다가 걸작 <황학루>시에 깜짝 놀라 좌절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나중에 <登金陵鳳凰臺><sup>5)</sup>를 지으며 최호의 <황학루>시를 모방<sup>6)</sup>해서 <황학루>시와 승부를 겨누었다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백이란 인간은 웅졸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최호의 <황학루>시의 뛰어남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졌

를 짓지 않고 떠나니 철장에게 시를 새기는 작업을 그만두게 시켰다.(无作而去, 爲哲匠斂手云)"라고 하였다. 아울러 세간에는 이백이 이 때 지었다는 打油詩까지도 전하는데 이백의 다른 시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호사가의 장난으로 보인다.

4) 宋의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최호의 <황학루>시가 당대 칠언율시의 최고(第一)라고 평했다.

5) <登金陵鳳凰臺> 이백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三山半落青天外, 一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봉황대 위에서 봉황이 놀다가, 봉황이 떠나고 누대가 비었는데 장강은 홀로 흘렀다. 오나라 궁궐 꽃과 풀은 버려진 길에 묻혔고, 진나라 시절의 옷과 관은 옛 무덤이 되었다. 삼산은 푸른 하늘 밖에 반쯤 드리웠고, 한 물은 가운데가 백로주에서 나뉘었다. 온통 뜬 구름이 해를 가려서, 장안 보이지 않아 사람 근심케 한다.

6) 元의 方回는 『瀛奎律髓』卷一에서 "이태백의 이 시는 바로 최호의 체를 모방했다. 두 시 모두 5, 6구에서 공을 더하였고 미구에서 감탄을 하였다. 이때의 율시는 도리어 아직 대구의 구속을 덜 심하게 받았다.(太白此詩乃是效崔顥體, 皆於五六加工, 尾句寓感嘆是時律詩猶未甚拘偶也)"고 하였다.

다. 이 목적에 더해서 내용의 흥미진진함을 살리기 위해 이백의 이야기가 더해졌는데 마침 이백의 <등금릉봉황대>는 그 형식에서 <황학루>시의 모방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전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신뢰를 하더라도, 그리고 대시인 이백이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에서 전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요소에는 논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이백은 25세(725) 이후로 40세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무한과 황학루를 찾았다. 장안에서 쫓겨난 45세 이후부터 안록산(756)의 난 이전까지 무한을 방문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이백이 주로 머문 곳이 南京이었으니 배로 이동할 수 있는 무한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sup>7)</sup> 그리고 안록산의 난 이후 역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돌아온 뒤에는 죽을 때까지 거의 집이나 마찬가지로 황학루를 찾았고 장강 유역을 돌아다녔다. 이백이 황학루에 자기 시를 새기러 갔다가 최호의 <황학루>를 거기서 처음 보고 좌절했다면 최호가 과연 언제 이백보다 먼저 황학루에 가서 그곳에서 <황학루>시를 지어서 이 시를 황학루에 남겼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최호는 723년에 진사가 되었을 때 아직 20세도 안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725년 이전에 <황학루>를 지었을 것 같지 않다.

둘째, 이백은 황학루와 관련해서 728년(<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부터 여러 수의 한시를 남겼다. 심지어 죽기 바로 전 해(761)에도 황학루를 소재로 쓴 한시(<廬山謠寄盧侍御虛舟>)를 지었다. 이백은 특히 만년에 황학루 관련 시를 여럿 남겼다. 그러니 이백이 황학루 관련 시를 안 쓴 것도 아니다. 이백이 황학루에 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은 시기는 장안에서 쫓겨난 745년에서

7) 정례발표회에서 「黃鶴樓 관련 李白詩 연구」를 발표했을 때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던 서울대학교 중문과 임도현 선생은 이백의 <送儲巖之武昌>시의 구절인 “봄바람이 서른 번이나 불어오도록 공연히 무창성만 생각할 뿐이었다(春風三十度, 空憶武昌城.)”에 근거하여 이백이 28세(728) 즈음에 황학루에 간 뒤 한 번도 가지 않다가 30년 이후인 58.9세(758.759)에 황학루를 찾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시의 표현에 근거했을 때에는 일리가 있는 이론이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백시에는 그의 30대의 시절에 무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시들이 있고 40대에 남경에서 거주한 시도 많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안사의 난이 일어난 755년 사이이다. 이백은 황학루 관련 시를 짓지 않았다고 선언했다는 다른 기록도 없고 실제로 이백은 황학루 관련 시를 많이 지었다. 그러므로 이 최호의 시 때문에 황학루 관련 시를 짓지 않았다는 말을 사실과 많이 다르다.

셋째, <황학루>시 이야기에 전하는 이백의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럽고 치졸하게 각색되었지만, 도리어 현실의 이백은 이 이야기의 모습보다 더 ‘뻔뻔’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지 과거의 인물인 이백을 파악치한 인물이라고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백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졌으며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sup>8)</sup> ‘이백은 스스로의 완전함에 대해 자부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백이 만약 <황학루>를 모방하여 <등금릉봉황대>를 지었다면 이것은 이백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백의 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단어, 구절, 주제 등을 거리낌 없이 차용한 작품이 많으며 이백은 자기 자신의 것도 거리낌 없이 가져다 썼다. 이백이 차용을 부끄러워해서 그 자리에서는 회피를 하고 다른 곳에서 몰래 가져다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최호의 <황학루>시 이야기에서 이백답지 않아 보이는 부분은 ‘이백이 최호보다 시를 잘 쓸 수가 없어서 시 쓰기를 포기했다<sup>10)</sup>’는 것이다. 이백의 自己愛는 그 자리를 모면해서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여전히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백다운 방식이다. 그러니 만약에 정말로 이백이 붓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8)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4쪽.

9) 임도현, 앞의 논문, 49쪽.

10)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현재 중국의 황학루 앞에는 이백이 붓을 내린 곳이라고 擲筆亭까지 만들어져 있다. 물론 황학루 자체도 원래 자리가 아니라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백은 28세 즈음에 이미 황학루가 시의 소재로 나오는 <황학루송맹호연지광릉>을 썼고 이 시는 황학루와 연관된 가장 유명한 한시의 하나이다. 최호가 <황학루>를 쓴 것 보다 먼저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설령 최호의 <황학루>가 더 뛰어난 고전 한시라고 할지라도 이백이 최호의 시의 뛰어난에 압도되어 시 창작을 포기했을 사람이 아니다.

최호의 <황학루>시와 이백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 계유공은 ‘아마도 아닐 것 같다’고 하였다. 본 논문도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에 대해 앞에서 논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이야기는 매우 인기가 있으며 거의 사실인 것으로 널리 퍼졌다. 물론 고대의 기록들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하지만 어떠한 기록이든 그렇게 기록된 이유나 맥락이 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나 후대의 상황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문방의 『당재자전』 이후에 각색이 더해진 부분은 최호의 <황학루>시의 뛰어난 보다는 이백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더 치중하였고 본 논문에서 더 다룰 문제는 아니다.

계유공이 처음 전한 내용은 “세상에 전하기로 이태백이 말하길 ‘눈앞에 풍경에 있어도 말할 수 없으니, 최호가 지은 시가 앞에 있구나’라 하였고 마침내 <등금릉봉황대>시를 지어서 승부를 겨뤘다고 한다.”였다.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정보는 두 가지이다. 첫째, 최호의 <황학루>시 때문에 이백이 황학루의 풍경에 대해 시를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백의 <등금릉봉황대>가 최호의 <황학루>와 어떤 의미에서든 비견되었다는 것이다.

최호의 <황학루>와 이백 사이에 있었다는 일화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세상에 전하는 어떠한 허황된 전설에도 그 전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사유의 맥락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계유공이 전한 이야기에도 이백시를 평가하는 일정한 맥락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백과 이백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전체 이백시에서 ‘황학루’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백이 황학루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백의 많은 시에 황학루가 이미 다양하게 반영되었고 최호의 <황학루>시와 비슷한 형태의 시도 존재하였음에도 왜 굳이 <등금릉봉황대>가 문제가 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본 논문이 이백의 황학루 관련 한시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최호의 <황학루>시와 이백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백이 황학루를 어떻게 자신의 시에 반영하였고 그 반영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백의 한시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李白詩에 등장하는 黃鶴樓의 의미

### 1) 역사적인 황학루<sup>11)</sup>

황학루는 中國 武漢市 長江가에 있는 누각으로 湖南의 岳陽樓, 南昌의 滕王閣과 함께 江南三大名樓의 하나이다.<sup>12)</sup> 황학루는 본래 三國時代 吳나라 黃武 2년(223)에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東吳에서 黃鵠磯(나중의 황학산)가에 만든 군사적인 누대이다.<sup>13)</sup> 황학루라는 이름은 황학기(황학산)에서 가져왔다. 뒤에 군사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명승을 전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황학루는 역대에 걸쳐 여러 차례의 훼손을 겪었고 현재 전하는 황학루는 清末에 소실된 것을 1985년에 새로 만든 것으로 위치도 본래 자리가 아니다.

황학루의 실재 건축에 그다지 매력적인 역사적 기록이 없는 것과 달리 황

11) 황학루의 역사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모두 『中國山水文化大觀』(段寶林, 江溶 主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년)을 참조하였다.

12) 段寶林, 앞의 책, 305쪽.

13) 蜀의 劉備가 赤壁大戰을 이긴 다음 이곳에서 주유에 의해 곤경에 처할 뻔 했다가 諸葛亮의 기지로 탈출했다는 『三國演義』의 이야기는 시기가 맞지 않다. 曹操가 220년에 죽었고 유비가 223년에 죽었다.

학루에는 신선과 관련된 낭만적인 허구적 기원이 있다. 황학루는 이름에 포함된 황학이 신선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황학루는 그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며 황학루 건물 자체가 그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14)</sup> 역사적으로 언제 누가 왜 지었는지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사람들은 황학루에 대한 허구적인 기억을 더 선호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전설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에게 황학루는 신선이 황학을 타고 떠난 곳으로 더 알려졌다.

황학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그것이든 사실이든 허구이든, 황학루에 대한 몇 가지 인상을 남겼다. 그 중에 사실적인 사항인 군사적 목적의 누대, 삼국시대의 건축물, 吳나라 건축, 전쟁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음 등은 큰 반향이 없었다. 도리어 황학루 건너편 장강에 鸚鵡洲가 있다는 지리적 사실이 더 중요했다. 반면 황학루에 대한 허구적 기록이 만든 인상은 유명하였다. 황학루는 황학 때문에 지어졌다. 신선이 황학을 탔다. 황학루는 원래 술집이었다. 황학루에서는 도사에게 술을 마음껏 대접했다. 황학과 신선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스스로 하늘에서 추방당한 신선임을 중년 이후에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던 이백은 술과 도사와 학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황학루라는 장소에 어떤 이끌림을 느꼈던 것이 확실하다. 이백은 특별히 명승지에 대한 시를 쓰는 것

14)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梁의 蕭子顯이 쓴 『南齊書』에서는 선인 子安이 황학을 타고 이곳에 들렀다고 하였다. 『太平寰宇記』에서는 삼국시대 촉의 승상이었던 費禕가 등선을 한 다음 황학을 타고 이곳에 들릴 때마다 쉬었다고 하였다. 梁의 任昉은 비위가 아니라 荀叔偉라 하였다. 『報恩錄』에서는 黃鶴磯에 신씨의 주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느 노도사가 술을 와서 술을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나갔는데 주점의 주인은 조금은 다투지 않고 항상 예의로 상대하였다. 도사가 멀리 타향을 가려고 했는데 헤어질 때에 귤껍질로 주점 벽에 황학을 그리고는 주인에게 말하길 ‘손님이 왔을 때 손을 한 번 치면 황학이 춤을 추며 흥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씨가 시험 삼아 손을 치니 황학이 정말로 날면서 춤을 추었다. 이때부터 신씨의 주점은 손님으로 가득했고 장사가 번창하였다. 10년 후에 노도사가 구름을 타고 와서 피리를 불어 황학을 타고 떠났다. 신씨는 노도사에게 감사하기 위해 황학루를 지었다고 한다. 段寶林, 앞의 책, 305-306쪽.

을 즐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역사적 인물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대중의 인식보다 자기 스스로의 호불호에 따라 시를 쓴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런 이백이 황학루와 관련된(중심 주제로 사용하거나 제재나 소재로 사용한) 작품을 15수 이상 썼다는 것이 이백의 황학루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 물론 모두 허구적인 황학루에 대한 관심이었다.

## 2) 이백시 안에 표현된 황학루의 모습

### (1) 문학적 황학루의 한 모습

이백시에 표현된 황학루는 결국 문학적인 황학루이다. 이 문학적인 황학루가 반드시 허구적인 황학루인 것은 아니다. 중국 시문학의 역사에서 황학루 관련 시가 가운데 유명한 작품으로 비교적 초기의 작품에는 宋의 鮑照가 쓴 <登黃鶴磯><sup>16)</sup>가 있다. 황학루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황학루 건너편 황학기(황학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황학루에서 보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며 시에 담긴 감정 역시 비슷할 것이다. 가을에 황학산 위에서 포조가 장강을 바라보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은 황학루 관련 시에 등장하는 시적화자의 전형적 모습을 만들었다.

황학루를 포함하는 ‘누대라는 공간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멀리 바라볼

15) 이것은 필자가 전체 이백시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어떤 체계적인 통계나 근거는 없다.

16) <登黃鶴磯> 鮑照

木落江渡寒，雁還風送秋。臨流斷商弦，瞰川悲棹謳。適郡無東顧，還夏有西浮。三崖隱丹磴，九派引滄流。淚竹感湘別，弄珠梅漢游。豈伊藥餌泰，得奪旅人憂。

나뭇잎 떨어지는 강나루 추운데, 기러기 돌아오고 바람은 가을을 불어왔다. 강물 내려 보며 상성의 현을 잘라내고, 물결 바라보니 뱃노래 소리에 슬프다. 영으로 가려니 동쪽으로 갈 수레가 없고, 하수로 돌아가는데 서쪽으로 갈 배는 있다. 세 골짜기에는 붉은 비탈길 같은 해가 숨었고, 아홉 물줄기는 푸른 물줄기를 이끈다. 대나무 보고 눈물 흘리며 상강에서 이별을 느끼고, 구슬을 희롱하며 한수에서 노닌 것 후회한다. 어찌 저 약물이 영험하더라도, 길 떠난 나그네의 근심을 뺏을 수 있겠는가.

수 있다. 전망이 좋고 시야가 넓어지는 공간이다.<sup>17)</sup> 멀리 바라보려고 높이 오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먼 곳을 지향하는 사고가 있다. 자신이 먼 곳을 가기를 바라거나 먼 곳으로 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 먼 곳에서 누군가 자기를 생각하기를 바라거나 먼 곳에서 자기에게 사람이나 소식이 찾아오길 바란다. 어떤 곳을 오르는 행위는 그 인물의 감정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그의 달라진 감정이 촉진시킨 행동이며, 그의 달라진 시야 역시 그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킨다.

황학루는 장강과 한수가 만나는 무한의 강가에 자리했으며 장강의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황학루에 올라 누군가는 커다란 포부를 가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향으로 떠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곳으로 오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포조의 <등황학기>는 이 황학루에 오른 사람이 슬픈 나그네라고 알려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모습은 문학적 황학루와 관련된 형상의 하나이다.

唐代에 들어서 황학루는 분명히 이별, 연회, 유람, 전망, 독지 등의 주요 장소가 되었다. 그에 반해 황학루와 관련된 시가 이백 이전에 지어진 것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初唐의 宋之問의 <漢江宴別><sup>18)</sup>, 王維의 <送康太守><sup>19)</sup>, 孟浩然的 <江上別流人><sup>20)</sup>이 있다. 송지문과 왕유의 시는 이

17) 임도현 선생의 지정토론문에서 인용하였다.

18) <漢江宴別> 宋之問

漢廣不分天，舟移杳若仙。秋虹映晚日，江鶴弄晴烟。積水浮冠蓋，遙風逐管弦。嬉游不可極，留恨此山川。

한수는 넓어서 하늘과 분간할 수 없으니 배가 떠나감이 아득한 것이 마치 신선과 같다. 가을 무지개가 석양녘에 비치고 강의 학이 맑은 연기를 희롱한다. 모인 강물은 사신을 물에 띄우고 멀리 부는 바람은 관현 소리를 뒤따른다. 즐기고 노닐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였으니 이 산과 물에 아쉬움을 남겼다.

19) <送康太守> 王維

城下滄江水，江邊黃鶴樓。朱欄將粉堞，江水映悠悠。鐘吹發夏口，使君居上頭。郭門隱楓岸，侯吏趨蘆洲。何異臨川郡，還勞康樂侯。

성 아래에는 푸른 강의 물 강 가에는 누런 학의 누대. 붉은 난간이 하얀 칠 벽에 붙어

백의 <황학루송맹호연지광릉>보다 이전에 쓴 것이 확실하나 맹호연의 시는 분명하지 않다.

송지문의 <한강연별>시는 떠나는 사람과 餞別宴을 벌이는 내용이다. 떠나는 사람은 관리로 보이는데 시인은 그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전별연의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시에 송지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나 그에 따른 좌절이 담겨있지는 않아 보인다. 제1~2구에서 하늘과 구분할 수 없는 강물로 배가 멀리 떠나가니 마치 신선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은 황학루<sup>21)</sup>와 관련된 신선 이야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왕유의 <송강태수>는 송별의 시이긴 한데 어떤 비극적이거나 운명적인 작별을 하는 순간 주고받는 내용은 아니다.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으나 태수가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역을 순행하거나 다른 공무적인 행차를 가는 장면을 묘사하며 강태수가 과거 임천태수였던 사령운과 다르지 않다고 찬미한 내용이다. 과거 황학루가 본래 군사적인 목적의 누대였다는 배경 지식에 어울리는 작품이다. 황학루에서 송별을 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황학루 관련 한시들과 비슷하지만 그 밖의 서정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다.

맹호연의 <강상별유인>은 시의 제목에서 이미 ‘떠적되어 가는 사람’을 장강 가에서 송별한다고 밝혔다. 이 시는 시인 역시 고향 떠난 나그네이며 이별하여 떠나가는 사람 역시 다른 곳에서 귀양을 와서 잠시 만났다가 다시 떠나

있어 강물에 유유히 비친다. 군대의 노래가 하구에서 들려오니 태수가 가장 앞에 자리한다. 외성의 문은 단풍나무 기슭에 숨었고 제후의 관리는 갈대 섬에서 달린다. 임천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사강락을 수고롭게 하는구나.

20) <江上別流人> 孟浩然

以我越鄉客，逢君謫居者。分飛黃鶴樓，流落蒼梧野。驛使乘雲去，征帆沿溜下。不知從此分，還袂何時把。

나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서 귀양 와 머물던 그대를 만났다. 서로 황학루에서 나뉘어 날아서 창오의 들로 흘러 떠돈다. 소식 알리는 사신은 구름을 타고 떠나고 길 떠나는 배는 물을 따라 내려간다. 모르겠구나 여기로부터 헤어지면 다시 소매를 언제나 쥌 수 있을지.

21) 제4구에서 ‘강의 학(江鶴)’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의 전하는 다른 판본에는 ‘노란 학(黃鶴)’이라고 된 곳도 있다.

가는 사람이다. 타향에서 잠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황학이 먼 길을 날아가서 멀리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디론가 떠나가서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도 할 수 없다.

이상의 포조, 송지문, 왕유, 맹호연의 시에 나오는 화자는 모두 황학루에서 모종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포조시의 화자는 가을에 모두 쇠락하는 시절에 타향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였다. 송지문시의 화자는 사신으로 가는 관리를 전별하며 잔치를 벌이지만 이별의 슬픔을 술잔치로 극복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였다. 왕유시의 화자는 태수의 거창한 군사적 행차를 찬미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슬픔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황학루에서 출발하는 태수를 찬미하는 태도에서 왕유 자신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맹호연시는 시의 화자가 떠돌이이고 떠나는 사람은 유배 가는 죄인이다. 두 사람 모두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황학루에서의 이별은 슬프기만 하다. 이러한 시의 화자들은 모두 그 구체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모두 황학루라는 공간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형상들이다. 그리고 시의 화자의 모습과 발언은 모두 시의 공간에서 문학적인 황학루의 모습을 형성해서 후대로 그 형상을 전했다. 최호의 <황학루>시 또한 이러한 문학적 흐름과 이어진 것이다.

## (2) 이백시에 등장하는 황학루의 여러 형상

이백의 황학루 관련 시에는 황학루와 관련된 여러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허구적이거나 문학적인 황학루의 모습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백시의 화자들은 포조, 송지문, 왕유, 맹호연시의 화자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백시에 나오는 이러한 황학루의 형태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sup>22)</sup>

22) 여타의 중국 고대의 시인들과 달리 이백은 황학루와 관련된 한시를 15수 이상 지었다. 이백시에 나오는 황학루의 형태에 대한 정리는 전체 고전 한시에서의 황학루의 형태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황학루의 네 종류의 모습은 서로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서로 그 내용이 교차하기도 한다.

- 가. 황학루는 신선이 됐거나 신선이 떠나간 장소이다.
- 나. 황학루는 이별의 장소이다
- 다. 황학루는 주로 고향을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장소이다.
- 라. 황학루는 술마시고 잔치하는 장소이다.

이백의 한시에서 황학루나 황학산이 직접 거론된 작품은 대략 15수로 파악된다. 여타 다른 시인과 비교해서 많은 수이다. 이백은 어떤 이유에서이든 황학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시로 써낸 황학루의 모습은 마땅히 시인 이백의 황학루에 대한 관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시들을 도표<sup>23)</sup>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구절	저작시기추정	황학루 내용 분류	정서
江夏行	相送黃鶴樓	개원(728)	이별, 그리움	민간 여성의 슬픔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故人西辭黃鶴樓	개원(728)	이별	이별과 송축
江上吟	仙人有待乘黃鶴	개원연간	신선, 그리움	뜻과 다른 환경으로 인한 슬픔
江夏送友人	送君黃鶴樓	개원연간(736?)	이별	친구 축하와 자신 신세비관
贈王判官，時余歸隱居廬山屏風疊	昔別黃鶴樓	안록산의 난 (756)	이별, 그리움	능력 발휘에 실패한 슬픔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	黃鶴樓中吹玉笛	유배 갈 때(758)	그리움	신세한탄과 장안의 동경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江夏韋太守良宰	三登黃鶴樓	유배 갈 때(759)	신선, 연회	능력과 다른 실패와 자신 신세 한탄
峨眉山月歌送蜀僧晏入中京	黃鶴樓前月華白	사면 후(759)	이별, 신선, 그리움	축승에 대한 덕담과 자신 신세한탄

23) 정례발표회에서 임도현 선생이 지정토론을 하며 도표로 정리를 한 것을 보여주었다. 시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으나 도표의 체제는 임도현 선생의 도표를 참조하였다. 시의 순서는 추정된 저작시기에 따라 배열하였다.

江夏寄漢陽輔錄事	江夏黃鶴樓	사면 후(759)	그리움	능력에 대한 한탄과 공명의 추구
江夏贈韋南陵冰	我且爲君搥碎黃鶴樓	사면 후(759)	신선, 연회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좌절과 울분
答裴侍御先行至石頭驛，以書見招，期月滿泛洞庭	寄書黃鶴樓	759	그리움	그리움과 근심
醉後答丁十八以詩譏予搥碎黃鶴樓	黃鶴高樓已搥碎	760	신선, 연회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실패의 슬픔
望黃鶴山	東望黃鶴山	760	신선, 이별	상실된 신선술에 대한 탄식과 속세에 대한 좌절
廬山謠，寄盧侍御虛舟	朝別黃鶴樓	만년(761)	신선, 이별	신선 추구
送儲邕之武昌	黃鶴西樓月	만년	이별	이별의 슬픔

이백은 황학루 또는 황학산에 신선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젊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백이 황학루에서 직접적으로 신선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거의 만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 역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백이 황학루에서 신선을 이야기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에게 더 이상의 정치적 희망이 없어 보일 때였다. 젊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江上吟>(開元年間)<sup>24)</sup> 역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만이 들어있다. 이러한 이백시로는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sup>25)</sup>(759), <醉後答丁十八以詩譏予搥碎黃鶴樓><sup>26)</sup>(760), <望黃鶴山><sup>27)</sup>

24) <江上吟> 開元 연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 실린 이백시의 系年은 대체로 『이태백 시집』(이영주, 임도현, 신하윤 역주, 서울: 학교방, 2015)의 정리를 따랐다.

木蘭之柁沙棠舟，玉簫金管坐兩頭。美酒樽中置千斛，載妓隨波任去留。仙人有待乘黃鶴，海客無心隨白鷗。屈平詞賦懸日月，楚王臺榭空山丘。興酣落筆搖五岳，詩成笑傲凌滄洲。功名富貴若長在，漢水亦應西北流。

목란나무의 노와 사당나무의 배, 옥통소와 금피리가 배 양쪽 끝에 있다. 좋은 술이 술항아리에 천 곡이나 채웠고, 기녀 태우고 물결 따라 가고 머뭇을 맡겼다. 선인은 의지함이 있어 황학을 타고 가버렸고, 바다 나그네는 기심이 없어 흰 갈매기 따른다. 굴평의 사부는 해와 달처럼 걸렸는데, 초왕의 누대와 정자는 산과 언덕에 비었다. 흥에 겨워 붓 휘두르나 오악을 흔들고, 시가 이뤄져 웃으며 자만하니 장주를 능멸한다. 공명과 부귀가 만약 오래 있을 수 있다면, 한수 역시 마땅히 서북쪽으로 흐르리라.

- 25) <經亂離後, 天恩流夜郎, 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 이 시의 황학루는 잔치하는 곳이 기도 하다. 이백은 이 시에서 자신이 본래 신선의 자질이었으나 세상을 잘못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시의 중간에 자신이 외람되게 황학루의 잔치에서 대접을 받았다고 하였다. 예형과 앵무주의 부분에는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만도 담겨있다.

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 仙人撫我頂, 結發受長生. 誤逐世間樂, 頗窮理亂情. … 夜郎萬里道, 西上令人老. 掃蕩六合清, 仍爲負霜草. 日月無偏照, 何由訴蒼昊. 良牧稱神明, 深仁恤交道. 一忝青雲客, 三登黃鶴樓. 願慚禰處士, 虛對鸚鵡洲. …

천상의 백옥정에 열두 누대 다섯 성. 선인이 내 머리를 매만지니 머리 묶은 어린 나이에 장생의 수법을 받았다. 세상의 즐거움을 잘못 쫓아서 인생의 좋고 나쁜 많은 실정을 다 맛보았다. … 야랑으로 가는 만 리 길 서쪽으로 가자니 사람을 늙게 만들었다. 육합을 맑게 쓸어내었지만 여전히 서리와 풀을 인 신세가 되었다. 해와 달은 치우쳐 비침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푸른 하늘에 하소연 하겠는가. 좋은 지방관이 신명하다고 칭송되어 깊은 인자함으로 사귀의 도를 구휼하게 여기셨다. 한 번 청운의 객을 더럽혔고 세 번 황학루에 올랐다. 도리어 예형 처사에게 부끄러우니 헛되게 앵무주를 대했다. …

- 26) <醉後答丁十八以詩譏予槌碎黃鶴樓> 이 시는 <江夏贈韋南陵冰>에서 이백이 황학루를 부수겠다고 한 짓구에 대해 뒤에 정십팔이 뭐라고 하자 그에 대한 답으로 썼다고 한다. <江夏贈韋南陵冰>는 위빙이 이백을 위해 열어준 잔치에서 쓴 시인데 두 시 모두 이백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했다는 말이 나온다.

黃鶴高樓已槌碎, 黃鶴仙人無所依. 黃鶴上天訴玉帝, 卻放黃鶴江南歸. 神明太守再雕飾, 新圖粉壁還芳菲. 一州笑我爲狂客, 少年往來相識. 君平簾下誰家子, 云是遼東丁令威. 作詩調我驚逸興, 白雲繞筆窗前飛. 待取明朝酒醒罷, 與君爛漫尋春暉.

황학의 높은 누대가 이미 부서져서 황학의 선인이 의지할 곳이 없다. 황학이 하늘에 올라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니 황학을 놓아주어 강남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신명한 태수가 다시 조식을 하고 새로 분바른 벽에 그림을 그려 다시 방비해졌다. 온 주의 사람들이 내가 광객이라 비웃었고 청년들은 왕왕 나를 찾아와 나무랐다. 엄군평 주렴 아래의 어느 집의 자식인가, 말하길 이 사람은 요동 정령위라 한다. 시를 지어 나를 희롱하니 뛰어난 흥취에 놀랐는데 흰 구름이 붓을 감돌고 창 앞으로 날아왔다. 기다렸다 내일 아침에 술이 다 깨면 그대와 흐드러지게 봄의 빛을 찾으리라.

- 27) <望黃鶴山>

東望黃鶴山, 雄雄半空出. 四面生白雲, 中峰倚紅日. 巖巒行穹跨, 峰嶂亦冥密. 頗聞列仙人, 于此學飛術. 一朝向蓬海, 千載空石室. 金龜生煙埃, 玉潭秘清謐. 地古遺草木, 庭寒老芝朮. 蹇予羨攀躋, 因欲保閑逸. 觀奇遍諸岳, 茲嶺不可匹. 結心寄青松, 永悟客情畢.

동쪽으로 황학산을 바라보니 웅장하게 반공으로 나왔다. 사면에서 흰 구름 생겨나고 중봉에는 붉은 해가 기대었다. 바위산이 하늘을 가로 지나고 봉우리 또한 어둡고 백백하다. 자못 듣기로 여러 신선들이 여기에서 하늘을 나는 술법을 배웠다 한다. 어느 아침에 봉래산 바다로 향해 천년을 석실이 비었다. 황금 아궁에는 먼지가 나오고 옥

(760), <廬山謠寄盧侍御虛舟><sup>28</sup>(761) 등이 있다.

황학루는 지리적으로 무한의 장강 가에 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과 이별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그리고 황학루에 얽힌 전설에서도 신선이 황학을 타고 이곳을 떠났다. 이백은 젊어서부터 이곳에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백시로는 <江夏行><sup>29</sup>(728),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sup>30</sup>(728), <江夏

연못은 맑고 고요함 감추었다. 땅은 오래되고 초목이 버려졌고 정원 차가운데 지초와 차조가 늙었다. 아아 내가 이곳을 오르길 바라서 그래서 한가하고 빼어난 것 보전하려 하였다. 기이한 것 보려고 여러 산을 다 다녔지만 이 끝자리에 필적할 수 없다. 마음 맺어 푸른 소나무에 맡기고 영원히 깨우쳐 나그네 마음을 끝내리라.

28) <廬山謠寄盧侍御虛舟> 이 시는 황학루에서 출발하여 다시 옥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시를 마친다.

我本楚狂人，鳳歌笑孔丘。手持綠玉杖，朝別黃鶴樓。五岳尋仙不辭遠，一生好入名山遊。… 早服環丹無世情，琴心三疊道初成。遙見仙人彩雲裏，手把芙蓉朝玉京。先期汗漫九垓上，願接盧敖遊太清。

나는 본래 초나라 미치광이로 봉황을 노래하며 공자를 비웃었다. 손에는 녹옥장을 쥐고 는 아침에 황학루를 이별했다. 오악에서 신선을 찾으며 멀다고 마다하지 않았고 일생을 명산에 들어가 노닐기를 좋아했다. … 일찍이 환단을 먹어 세속의 마음이 없으니 단전을 셋으로 겹치게 조절하니 도가 처음 이루어졌다. 멀리 채색 구름 속에서 선인을 만나 손에 부용을 잡고 옥경에서 조회하리라. 구해 위에서 한만과 만나기로 먼저 기약했으니 노오와 함께 태청에서 노닐기를 바란다.

29) <江夏行> 이백의 신악부 가운데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쓴 후인도 없고 이 시가 유행하지도 않았다.

憶昔嬌小姿，春心亦自持。爲言嫁夫婿，得免長相思。誰知嫁商賈，令人卻愁苦。自從爲夫妻，何曾在鄉土。去年下揚州，相送黃鶴樓。眼看帆去遠，心逐江水流。只言期一載，誰謂歷三秋。使妾腸欲斷，恨君情悠悠。東家西舍同時發，北去南來不逾月。未知行李遊何方，作個音書能斷絕。適來往南浦，欲問西江船。正見當爐女，紅妝二八年。一種爲人妻，獨自多悲淒。對鏡便垂淚，逢人只欲啼。不如輕薄兒，且暮長相隨。悔作商人婦，青春長別離。如今正好同歡樂，君去容華誰得知。

예전을 기억하니 곱고 어린 자태에 봄마음도 또한 스스로 견뎌내었다. 위하여 말하길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걸 면할 수 있으리라. 누가 알았으리, 장사하는 상인에게 시집을 가서 오히려 사람을 근심하고 괴롭게 만들 줄을. 부부가 된 이후로 언제 일찍이 고향이 있던 적 있는가. 전년에 양주로 내려가 황학루에서 그대를 전송하였다. 눈으로 듯이 떠나가 멀어지는 것 바라보고 마음으로 강물 흐르는 것 좇았다. 단지 일 년 기약을 말했는데 누가 삼 년이 지날 줄 생각했으리. 첩으로 하여금 애가 끊어지게 만드니 그대를 원망하는 마음 끝이 없다. 동쪽 집 서쪽 집이 함께

送友人><sup>31</sup>(736), <贈王判官時余歸隱居廬山屏風疊><sup>32</sup>(756), <峨眉山月歌送蜀

출발했는데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와도 한 달이 넘지 않는다. 행장을 차리고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아직 모르겠으니 편지를 써도 전달이 끊긴다. 근래에 남포로 가서 서강의 배인지 몰으려 했다. 마침 술을 파는 아가씨를 보았으니 붉게 화장한 이팔청춘 아가씨였다.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유독 나만 홀로 슬프고 처량함이 많았다. 거울을 마주하면 바로 눈물을 흘리고 사람을 만나면 그저 울려고 한다. 경박한 사람하고 아침저녁으로 늘 좇고 따름만 못하다. 상인의 아내가 된 것을 후회하니 청춘에 늘 헤어져 있다. 지금이 바로 함께 즐기기에 좋은 때지만 그대가 떠났으니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누가 알아주리.

- 30)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이 시에는 황학루의 여러 인상이 시의 풍격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젊고 희망에 차있던 시기의 이백이 쓴 이별시이다.

故人西辭黃鶴樓，煙花三月下揚州。孤帆遠影碧空盡，唯見長江天際流。

친구가 서쪽에서 황학루와 작별하고 안개 꽃 핀 삼월에 양주로 내려간다. 외로운 돛만 그림자가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다만 장강이 하늘 가로 흐르는 것만 보인다.

- 31) <江夏送友人> 비슷한 시기에 지은 비슷한 장소에서 지은 <江夏別宋之悌>(736)과 <江夏送張丞>(736)도 황학루라는 장소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황학루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보다 젊었던 20대와 달리 30대 중반의 나이의 이백은 모종의 간알이나 성공을 위한 작업들에 몇 차례 실패하였다. 이 시에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나타났다. 황학루에서 이별을 한 사람이 제왕의 고장으로 가는 것은 신선이 황학루를 떠나 옥경으로 간 전설과 같은 구도이다. 신선은 옥경으로 가고 인제는 장안으로 가는데 이백은 방법 없는 봉황일 뿐이다.

雪點翠雲裘，送君黃鶴樓。黃鶴振玉羽，西飛帝王州。鳳無瑯玕實，何以贈遠遊。徘徊相顧影，淚下漢江流。

취운구에 눈이 떨어지는데 황학루에서 그대를 보낸다. 황학은 옥 깃털을 떨치고 서쪽으로 제왕의 고장으로 날아간다. 봉황에게는 낭간의 영매가 없으니 멀리 가는 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배회하며 서로 그림자를 돌아보니 눈물이 떨어져 한수와 강수에 흐른다.

<江夏別宋之悌>

楚水清若空，遙將碧海通。人分千里外，興在一杯中。谷鳥吟晴日，江猿嘯晚風。平生不下淚，于此泣無窮。

초 땅의 물은 맑기가 하늘과 같고 멀리 푸른 바다와 통한다. 사람은 천리 밖으로 나뉘지만 흥취는 한 잔 술에 담겼다. 골짜기의 새는 맑게 갠 날에 울고 강가의 원숭이는 저녁 바람에 운다. 평소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나 이곳에서 우니 다함이 없다.

<江夏送張丞>

欲別心不忍，臨行情更親。酒傾無限月，客醉幾重春。藉草依流水，攀花贈遠人。送君從此去，迴首泣迷津。

헤어지려는데 마음은 차마 그럴 수 없고 길 떠남에 임박하여 정은 더욱 친해진다. 무

僧晏入中京><sup>33)</sup>(759), <送儲邕之武昌><sup>34)</sup>(만년) 등이 있다. 이러한 시 가운데

한한 달 아래 술을 기울이고 몇 겹 봄에 나그네는 취한다. 풀을 깔고 앉아 흐르는 물에 의지하고 꽃을 꺾어 멀리 가는 이에게 드린다. 그대를 이곳으로부터 떠나도록 보내게 되어 고개를 돌리고 눈물 흘리니 강나루가 아득하다.

- 32) <贈王判官時余歸隱居廬山屏風疊> 황학루에서 이별한 사람은 마땅히 신선과 같아야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백 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보이는데 황학루에서의 이별 뒤에 이백은 이백의 주장대로라면 남들에게 괴이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기심 없는 나그네와 바다갈매기 역시 이백이 매우 좋아하는 소재들이다.

昔別黃鶴樓，蹉跎淮海秋。俱飄零落葉，各散洞庭流。中年不相見，躑躅遊吳越。何處我思君。天台綠蘿月，會稽風月好。卻繞剡溪回。雲山海上出，人物鏡中來。一度浙江北，十年醉楚臺。荊門倒屈宋，梁苑傾鄒枚。苦笑我誇誕，知君安在哉。大盜割鴻溝，如風掃秋葉。吾非濟代人，且隱屏風疊。中夜天中望，憶君思見君。明朝拂衣去，永與海鷗群。

예전에 황학루에서 헤어지고 회해(양주)의 가을에 실의하여 세월만 보냈다. 모두 낙엽처럼 바람에 날리어 각자 동정호에서 흩어져 흘러갔다. 중년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오와 월에 풀죽어 머물렀다. 어느 곳에서 내가 그대를 생각했던가 천태산에 푸른 여라에 달이 떴던 곳. 회계는 경치가 바람과 달이 좋아 도리어 섬계를 감아 돌았다. 구름 덮인 산이 바다 위로 나오고 사람과 물상은 거울 속에서 나왔다. 한 번 절강을 북쪽으로 넘어서 십년을 초의 누대에서 취했다. 현문산에서는 굴원과 송옥을 압도했고 양원에서는 추양과 매승을 쓰러뜨렸다. 내가 과탄하다고 쓰게 비웃었으니 나를 알아 줄 지음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큰 도둑이 천하를 갈라서 바람이 가을 낙엽을 쓸어버리는 것 같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서 잠시 병풍 첩에 숨었다. 한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 생각나 그대 보고 싶다. 내일 아침 옷을 털고 떠나 영원히 바다 갈매기 떼와 함께 하리라.

- 33) <峨眉山月歌送蜀僧晏入中京> 이 시의 시작 연대에 대해서도 이설이 있다. 시의 화자가 오월 지방에서 부운처럼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년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의 화자가 정체되었음에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에 처량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젊었을 때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我在巴東三峽時，西看明月憶峨眉。月出峨眉照滄海，與人萬里長相隨。黃鶴樓前月華白，此中忽見峨眉客。峨眉山月還送君，風吹西到長安陌。長安大道橫九天，峨眉山月照秦川。黃金獅子乘高座，白玉麈尾談重玄。我似浮雲滯吳越，君逢聖主遊丹闕。一振高名滿帝都，歸時還弄峨眉月。

내가 파동의 삼협에 있을 때 서쪽으로 밝은 달을 보며 아미산을 기억했다. 달이 아미산에 떠서 푸른 바다를 비추니 사람과 함께 만 리 길을 오래도록 서로 따랐다. 황학루 앞 달빛은 새하얀데 이 속에서 우연히 아미산에서 온 나그네를 만났다. 아미산의 달이 다시 그대를 전송하니 바람이 불어 서쪽으로 장안의 길에 이르렀다. 장안의 큰 길은 구천을 가로지르고 아미산의 달은 진천을 비추리라. 황금사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백옥 총채로 오묘하고 오묘한 이치를 말씀 하시리. 나는 뜬구름처럼 오월 지방에

에서 <峨眉山月歌送蜀僧晏入中京>은 황학루와 관련된 이백시의 주요 인상이 모여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옛 전설에서 신선은 황학루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학을 타고 옥경으로 떠났다. <峨眉山月歌送蜀僧晏入中京>에서 촉승은 황학루에서 이백과 이별하고 황금사자를 타러 장안으로 떠난다. 옥경과 장안은 서로를 비유한다. 그러니 촉승은 하늘로 떠난 신선과 동등하다. 이 촉승은 놀랍게도 촉에서 왔고 그곳에는 아미산의 달이 있었다. 촉승은 아미산의 달로부터 와서 황학루에 들렀다가 이백과 이별한 뒤 달의 호위 하에 인간세상의 하늘인 제도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장안에서의 영광을 다하고 난 뒤 다시 아미산의 하늘로 돌아가 아미산의 달을 놀릴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이별을 한 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 된다. 중국시의 경우 이별 이후에 시를 고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학적인 전통에서 포조나 최호가 황학루에서 고향을 그리워한 것은 황학루에서는 자주 일어나던 일이다. 황학루에 올라 장강과 건너편을 바라보며 수도 장안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나 친척을 그리워하는 일은 이백시에서도 진귀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시로는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sup>35)</sup>(758), <江夏寄漢陽輔錄事><sup>36)</sup>(759)가 있다.

서 막혀있으나 그대는 성왕을 뵈고 붉은 궁궐에서 머물리라. 높은 명성을 한 번 떨치 시어 제왕의 수도에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다시 아미산의 달을 놀리시게.

34) <送儲邕之武昌>

黃鶴西樓月，長江萬里情。春風三十度，空憶武昌城。送爾難爲別，銜杯惜未傾。湖連張樂地，山逐泛舟行。諾謂楚人重，詩傳謝朓清。滄浪吾有曲，寄入棹歌聲。

황학 있던 서쪽 누각에 달이 뜨고 장강은 만 리를 정을 담아 흘렀다. 봄바람이 서른 번 넘어왔는데 부질없이 무창성을 기억한다. 그대 보내는데 이별하기 어려우니 술잔 물고 아쉬워 기울이지 못한다. 호수는 음악을 연주한 곳에 이어지고 산은 뜬 배가 가는 것을 쫓는다. 승낙은 초나라 사람들이 중히 했다고 여겨지고 시는 사조의 맑음을 전한다. 창랑에서 내가 음악이 있으니 보내어 뱃노래 소리에 넣는다.

35)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

一爲遷客去長沙，西望長安不見家。黃鶴樓中吹玉笛，江城五月落梅花。

한 번 내쫓긴 나그네가 되어 장사로 떠나니,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나 집이 보이지 않는다. 황학루에서 옥피리를 부는데, 강가 성엔 오월에 매화가 떨어진다.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에서 이백은 夜郎으로 유배를 가는 도중이었다. 떠들썩한 잔치를 벌일 입장은 아니었으나 제3구의 피리소리로 보아 그래도 사슴의 대접은 정중했던 것 같다.<sup>37)</sup> 황학루에서 장안이 보일 리 없다. 이백은 곧 황학루를 떠날 몸이다. 그가 원래 바라던 곳은 장안이었으나 그가 가야 할 곳은 야랑이다. 이백은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되거나 장안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하고 싶었는데 신선은 못되었으나 벼슬은 잠깐 했다. 그러니 이백이 장안에 집이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答裴侍御先行至石頭驛以書見

36) 〈江夏寄漢陽輔錄事〉 이 시에도 자신의(그리고 받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자부와 아쉬움의 내용이 나온다. 황학루가 신선이 떠난 다음 버려진 것처럼 황학루에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버려진 사람이다. 비록 그가 어떤 능력이 뛰어났더라도 신선이 될 수는 없었다.

誰道此水廣，狹如一匹練。江夏黃鶴樓，青山漢陽縣。大語猶可聞，故人難可見。君草陳琳檄，我書魯連箭。報國有壯心，龍顏不迴眷。西飛精衛鳥，東海何由填。鼓角徒悲鳴，樓船習征戰。抽劍步霜月，夜行空庭遍。長呼結浮雲，埋沒顧榮扇。他日觀軍容，投壺接高宴。

누가 이 물이 넓다고 말했나 좁기가 한 필의 비단 폭과 같다. 강하의 황학루 청산의 한양현 크게 말하면 도리어 들릴 수 있겠으나 친구는 만나기 어렵다. 그대는 진딧의 격문을 쓸 수 있고 나는 노중련의 화살 편지를 쓸 수 있다. 나라에 보답하는 장한 마음이 있으나 용안에서는 돌아보시질 않는다. 서쪽에서 정위에서가 날아오지만 동해를 어떻게 채우겠는가. 북소리 호각소리 다만 슬프게 울고 누대 전함에서는 전쟁 연습을 한다. 검을 뽑아 서리에 비치는 달빛을 밟으며 밤에 다니며 정원 여기저기를 비운다. 길게 외치니 떠다니는 구름에 맺혔고 고영의 부채를 묻어버렸다. 다른 날 군대의 위용을 보면서 투호를 하고 높은 연회에서 모시리라.

37) 이백은 귀양길에서 받은 사랑중의 대접에 감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면을 받은 뒤에 무한으로 돌아와서 사랑중(같은 사람으로 추측된다)에게 예전의 대접에 감사하며 그의 승진을 기원하였다. 역시 황학루에서 잔치를 했을 것 같다.

〈江夏使君叔席上贈史郎中〉(759)

鳳凰丹禁裏，銜出紫泥書。昔放三湘去，今還萬死餘。仙郎久爲別，客舍問何如。涸轍思流水，浮雲失舊居。多慚華省貴，不以逐臣疏。復如竹林下，叨陪芳宴初。希君生羽翼，一化北溟魚。

봉황이 궁궐 안에서 자주 진흙으로 봉인된 조서를 입에 물고 나왔다. 이전에 삼상의 귀퉁이로 추방되었다가 지금 돌아오니 만 번 죽어도 남겠다. 선랑과 오래전에 이별했는데 객사에서 어떠한지 물으셨다. 말라버린 수레 자국에서 흐르는 물을 그리워하고 떠도는 구름은 옛 고향을 잃었다. 화려한 관청의 귀한 신분에 많이도 부끄러운데 쫓겨난 신하라고 소원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대나무 숲 아래에서와 같이 외람되게 향기로운 연회를 처음 모신다. 바라기는 그대가 날개가 생겨나서 한 번 북명의 물고기로 변하는 것이다.

招期月滿泛洞庭><sup>38)</sup>(759)도 배시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니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황학루는 술집이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남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황학루에서 이별을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분통을 터뜨리던 그러한 일들에 술자리가 더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황학루 관련 시를 분류할 때 술자리를 따로 분류하는 것은 그 내용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위험도 있다. 그러나 전설상의 황학루의 주인이 노도사에게 공짜로 술을 마음껏 대접했던 이야기가 전제에 있다면 황학루시의 분류를 술자리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시에도 술자리가 여러 번 나왔다. 그 외의 시에는 <江夏贈韋南陵冰><sup>39)</sup>(760)이 있다.

38) <答裴侍御先行至石頭驛以書見招期月滿泛洞庭>

君至石頭驛，寄書黃鶴樓。開緘識遠意，速此南行舟。風水無定准，滯波或滯留。憶昨新月生，西檐若瓊鉤。今來何所似，破鏡懸清秋。恨不三五明，平湖泛澄流。此歡竟莫遂，狂殺王子猷。巴陵定遙遠，持贈解人憂。

그대가 석두역에 도착하여 황학루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 봉함을 열고 먼 곳의 마음을 알아서 급히 여기서 남으로 가는 배를 몰았다. 바람과 물에 일정한 법칙이 없어 험한 물결로 혹 정체되었다. 지난날 초승달 때를 기억하니 서쪽 처마에 옥고리 같았다. 지금은 무엇과 같은가 깨어진 거울이 맑은 가을에 걸렸다. 보름날 맑은 달인데 평호에서 맑은 물결에 띄우지 못함이 한스럽다. 이 즐거움 결국 이룰 수 없으니 왕자유를 참으로 미치게 한다. 파룽은 가깝고 멀이 정해졌으니 시를 쥐서 사람의 근심을 푼다.

39) <江夏贈韋南陵冰>

胡騎馬驚沙塵起，胡雛飲馬天津水。君爲張掖近酒泉，我竄三巴九千里。天地再新法令寬，夜郎遷客帶霜寒。西憶故人不可見，東風吹夢到長安。寧期此地忽相遇，驚喜茫如墮煙霧。玉簫金管喧四筵，苦心不得申長句。昨日繡衣傾綠樽，病如桃李竟何言。昔騎天子大宛馬，今乘款段諸侯門。賴遇南平豁方寸，復兼夫子持清論。有似山開萬里雲，四望青天解人悶。人悶還心悶，苦辛長苦辛。愁來飲酒二千石，寒灰重暖生陽春。山公醉後能騎馬，別是風流賢主人。頭陀雲月多僧氣，山水何曾稱人意。不然鳴笳按鼓戲滄流，呼取江南女兒歌棹謳。我且爲君捶碎黃鶴樓，君亦爲吾倒卻鸚鵡洲。赤壁爭雄如夢裏，且須歌舞寬離憂。

교만한 오랑캐의 말이 놀라게 해 모래 먼지 일어나고 오랑캐 젊은이 천진의 물에서 말을 먹었다. 그대를 장액을 다스리며 주천에 가까웠는데 나는 구천 리 떨어진 삼파로 달아났다. 천지가 다시 새로워지고 법령이 관대했지만 야랑으로 귀양 간 나그네는 서리의 추위를 달았다. 서쪽의 친구를 생각하나 만날 수 없었고 동풍이 꿈을 불러 장

〈江夏贈韋南陵冰〉는 이백이 永王璘의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다가 사면을 받고 돌아온 다음 남릉현령 위빙이 차려준 잔치자리에서 쓴 시이다. 이 시는 황학루를 부수겠다는 이백의 주정으로 유명하다. 시에 따르면 이백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고 위빙 역시 능력 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백은 이 시에서도 자신이 장안의 꿈을 꾀었다고 말한다. 황학루에 차려진 술자리이지만 신선이 되지 못해 황학루에 남겨진 이백과 그의 친구들에게 세상은 괴롭기만 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황학루와 앵무주는 없어져야 할 장소이다. 적어도 늙은 이백이 느끼는 그곳은 그런 의미였다.

### 3. 崔顥의 〈黃鶴樓〉에 대한 李白의 共感

#### 1) 시 속에서의 황학루의 인상과 이백시에서의 의미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백시에는 여러 형상의 황학루가 나왔다. 이러한 황학

안에 가게 했다. 어찌 이곳에서 홀연히 그대를 만날 줄 기약했으리 놀랍고 기뻐서 연무에 떨어진 듯 망연했다. 옥통소와 금피리가 사방 자리에서 떠들썩한데 괴로운 마음은 긴 구절로 펼칠 수 없다. 어제는 수놓은 옷을 입은 이들이 푸른 술잔을 기울였는데 도리처럼 병이 드니 결국 무슨 말을 했는가. 옛날에 천자의 대원마를 탔는데 지금은 제후의 문하에서 느려터진 말을 탄다. 다행히 남평태수가 마음을 활짝 연결 만났으니 거기다 선생은 맑은 담론을 지니기까지 했다. 산에 만 리의 구름이 열려진 것과 같아서 사망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의 근심을 푼다. 사람의 근심은 다시 마음의 근심 괴롭고 힘든 것은 늘 괴롭고 힘들다. 근심이 와서 이천 석 술을 마시니 싸늘하던 재는 다시 따스해져서 따뜻한 봄이 생겨난다. 산공은 취한 뒤에 말을 탈 수 있었고 유달리 이 사람은 풍류를 아는 뛰어난 주인이었다. 두타사의 구름과 달에는 승려의 기운이 많은데 산과 물이 어찌 일찍이 사람의 마음에 맞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피리 불고 북치며 푸른 물결을 희롱하고 강남의 여자를 불러서 뱃노래 부르겠지. 나는 장차 그대를 위해 황학루를 부수 버릴 것이니 그대 또한 나를 위해 앵무주를 엮어버리게. 적벽에서 자웅을 겨룬 것은 꿈속에서와 같으니 그저 마땅히 노래하고 춤추며 이별의 근심을 느슨하게 하리.

루의 형상은 전설적인 황학루 이야기로부터 그 인상에 대한 사고의 전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설화에서 황학루는 본래 술집이었다. 이 술집에서 주인은 노도사를 극진히 모셨다. 노도사는 신선이 되어 떠났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황학을 남겼다. 황학은 신선을 태우고 황학루를 떠나 옥경으로 올라갔다. 그 뒤로 황학루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전개에서 과거의 사람이 받아들인 황학루의 인상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이백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황학루에서 신선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사람이 매우 출세하여 천자의 곁으로 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구도는 특히 이백에게 매우 긍정적인 형태이다. 만약 천자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도 황학루에서 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매우 고아한 떠남이 된다. 황학루를 떠나는 사람은 이미 신선과 같고 황학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황학과 신선은 황학루를 떠나버렸다. 사람도 황학루를 떠난다. 다만 이야기의 황학과 신선은 분명 옥경으로 갔는데 사람은 반드시 출세하거나 성공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황학루의 신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가져온 중요한 모순점이 존재한다. 이전까지는 황학루에서 즐겁게 이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황학루의 시는 황학루를 떠나는 사람<sup>40)</sup>과 황학루에 남는 사람<sup>41)</sup> 모두에게 그들의 존재 가치를 묻게되었다.

관리 생활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도 장안에서 떨어져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또는 가고 싶어도 못하는 장소가 있는, 또는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황학루에 올라 고향, 장안, 그들이 가고 싶거나 보고 싶은 장소와 사람을 그리워했다. 황학루의 황학은 날아갈 수 있었다는데, 그래서 황학을 타고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황학루에 황학도 없고 신선도 없다. 결국 황학루는 신선이 황학을 타고 떠나가 버린 장소다. 황학루는 황학을 잃어버린

40) “황학루를 떠나는데 그대는 왜 신선이 못되어 지지부진하게 인간세상을 돌아다니는가?” 벼슬이나 성공으로 바꾸어 물을 수 있다.

41) “그대는 황학루에서 신선을 전송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신선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럼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벼슬이나 성공으로 바꾸어 물을 수 있다.

곳이다. 즉 황학루는 상처 많은 고대 문인에게는 이상과 꿈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앞에서 분류하였던 황학루와 관련된 이백시를 검토했을 때에 이백시의 경향 역시 이와 비슷하였다. 비교적 청년기에 지은 이백시에 나온 황학루는 주로 이별의 장소였다. 이백은 이별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sup>42)</sup> 그는 황학루가 신선이 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였어도 황학에나 의지하는 신선이 되기보다는 유유자적 갈매기를 따르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sup>43)</sup> 대략 10년간의 좌절을 겪은 뒤 30대 중반에 지은 이백시에서도 황학루는 주로 이별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 이백도 황학루에서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다.<sup>44)</sup> 떠나는 사람은 수도로 가는데 자신은 아직 떠나지 못했다.

그 뒤 황학루와 관련된 이백시는 이백 만년에 집중되었다. 40대와 50대 초반에 황학루와 관련되어 쓰인 이백시는 없다. 이백은 안록산의 난 이후 永王의 군대에 잘못 합류하였다가 반란군에 참여한 것으로 치죄되어 유배당하였다. 43세에 한림공봉이 되어 천자 바로 옆까지 갈던 천재시인 이백은 쫓겨난 뒤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하늘 높이 오르려다가 도리어 깊이 추락하였다. 유배되어 가다가 돌아와서 죽기 전까지 그는 무한을 중심으로 한 장강 유역을 떠돌았고 황학루는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낸 장소의 하나였다.

이 시기 그는 황학루에서 신선이 되길 바라기도 하였다. 천자의 곁을 꿈꾸기도 있었으나 신선이 되려는 것은 세속적 희망을 버렸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황학루에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는 황학루에서 이별을 하기도 했고 술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했으며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떠나는 사람과 자신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아울러 자신(과 떠나는 이)의 능력에 대해 강하게 설명하였다. 이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였기

42)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43) <江上吟>

44) <江夏送友人>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백에게 황학루는 매우 분명하게 상실의 공간이었으나 이백은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江夏贈韋南陵冰>에서 황학루와 앵무주를 파괴하겠다는 이백의 술주정은 이백 자신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표현이었다.

## 2) 崔顥의 <黃鶴樓>와 李白의 <登金陵鳳凰臺>와 <鸚鵡洲>가 형성한 공감대

계유공의 『唐詩紀事』에서는 최호와 이백 사이의 이야기에 최호의 <황학루>와 이백의 <등금릉봉황대>(747)만을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이백의 <앵무주>(760)<sup>45)</sup>도 여기에 포함시켜 설명을 한다.<sup>46)</sup>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듣기에도 뻔뻔한 이백이 <황학루>시를 보고 황학루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고는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나중에 남의 시를 똑같이 흉내 내서 <등금릉봉황대>와 <앵무주>를 지었다. 황학루에 오른 우스꽝스런 이백의 이야기는 지방 관광명소에서 손님을 더 끌어 모으려고 만들어놓은 근거 없는 광고에 가깝다. 1985년에 새로 만든 황학루에 이백의 각필정이 있다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역대 평자들이 초기부터 지적했듯이 <등금릉봉황대>와 <앵무주>는

### 45) <鸚鵡洲>

鸚鵡來過吳江水，江上洲傳鸚鵡名。鸚鵡西飛隴山去，芳洲之樹何青青。煙開蘭葉香風暖，岸夾桃花錦浪生。遷客此時徒極目，長洲孤月向誰明。

앵무새가 오강을 건너와서, 강가 모래톱에 앵무의 이름을 전했다. 앵무는 서쪽으로 날아 농산으로 가버렸고, 향기로운 모래톱의 나무만 질푸르다. 안개 속에 난초 잎이 피니 따뜻한 바람 타고 향기가 전해오고, 언덕 양쪽에 복숭아 꽃 자욱해 비단이 파도를 친다. 유배 간 나그네 이때에 그저 끝까지 바라보니, 긴 모래톱에 외로운 달은 누구를 향해 밝은가.

- 46) 이 이야기 자체가 주로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역대의 평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백의 <앵무주>가 최호의 <황학루>를 흉내 내었다고 비평하였다. 가장 못마땅한 평을 한 사람은 아마도 王世貞일 것이다. 그는 『藝苑卮言』에서 “태백의 <앵무주>는 <황학>을 효빈 하였다. 보기 싫다.(太白鸚鵡洲一篇，效顰黃鶴，可厭)”고 하였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3043쪽 재인용.

확실히 최호의 <황학루>를 시의 표현수법과 내용진개의 구상까지 흉내내었다. 시의 화자의 감정도 비슷하다. 타인의 시상에 대한 차용이 보편적인 시대였던 당대의 시인의 작품이며 더군다나 이백의 작품이지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흉내나 모방보다는 표절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이백이 자신과 동시대 인물이며 자신보다 어린 최호의 작품을 표절(또는 차용)하였고 그 최호에게 이 <황학루> 외에는 별로 유명한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이백의 황학루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백의 의심스런 시가 창작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분명히 이백의 시를 보면 모방의 혐의가 충분하다.

최호의 <황학루>를 이백이 흉내 낸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의 시작 부분이다. 한시에서 시의 시작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의 제목을 풀이하며 자신의 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질지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황학루> 최호

昔人已乘黃鶴去 옛사람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났고  
此地空餘黃鶴樓 여기엔 텅 비어 황학루만 남았다.  
黃鶴一去不復返 황학은 한 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白雲千載空悠悠 백운은 천 년 동안 그저 유유히 있을 뿐.

...

<등금릉봉황대> 이백

鳳凰臺上鳳凰遊 봉황대 위에서 봉황이 놀다가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이 떠나고 누대가 비었는데 장강은 홀로 흐른다.  
吳宮花草埋幽徑 오나라 궁궐 꽃과 풀은 버려진 길에 묻혔고  
晉代衣冠成古丘 진나라 시절의 옷과 관은 옛 무덤이 되었다.

...

<앵무주> 이백

鸚鵡來過吳江水 앵무새가 오강을 건너와서  
江上洲傳鸚鵡名 강가 모래톱에 앵무의 이름을 전했다.  
鸚鵡西飛隴山去 앵무는 서쪽으로 날아 농산으로 가버렸고  
芳洲之樹何青青 향기로운 모래톱의 나무만 짙푸르다.

...

시의 제목에 포함된 장소의 지명에 공통적으로 날짐승이 들어있다. 종류와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그 장소가 그 새의 본고장은 아니다. 그런데도 황학루와 봉황대<sup>47)</sup>와 앵무주가 이 새들로 이름을 지은 것은 현지 사정과 다른 역사적 맥락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시를 쓰는 당시에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 시의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소의 이름에는 남았으나 현실의 장소에선 사라진 존재들로부터 그 장소의 의의를 찾았다. 앞에서 검토한 황학루의 문학적 의미를 이들 시의 화자들이 다시 알려준다. 황학루는 황학이 사라진 상실의 장소이며 그래서 황학루는 화자의 이상의 상실을 상징하였다.

최호는 律詩를 쓰며 시의 절반인 전반부 4구를 모두 황학의 상실에 투자하였다. 황학루는 황학으로 이름이 났지만 황학이 없는 곳이다. 무려 천 년 동안 황학이 없었다.<sup>48)</sup> 이 엄청난 시간 동안의 부재와 상실이 시의 비극적 분위기를 강하게 형성하며 화자와 청자 모두를 압도하였다. 그들은 이 슬픔을 벗어날 수 없다. 백운은 황학에 대한 증인일지도 모르나 능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백은 이러한 상실의 전개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다. <등금릉봉황대>에

47)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송나라 元嘉 16년(439)에 봉황대 부근에 세 마리의 새가 날아들었는데 오색찬란하고 모양이 공작과 같아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봉황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산에 누대를 세우고 봉황대라 하였고 산은 봉황산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영주, 앞의 책, 50-51쪽. 전하는 말에 따르면 현재 남경에는 봉황대의 자취가 전혀 남지 않았다고 한다.

48) 황학루와 같이 강남삼대명루의 하나인 악양루는 황학루와 전혀 반대의 경우이다. 그 이름에 지명만 있고 예부터의 명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登岳陽樓> 두보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예전에洞庭의 물에 듣고 이제 악양루에 오른다. 오와 초가 동쪽과 남쪽으로 트였고 하늘과 땅이 밤과 낮으로 떠올랐다...

이 시에서 두보는 이전에 자신이 들은 악양루가 자신이 이제 본 악양루와 다르지 않다고 확인한다. 두보에게 문제는 악양루에 오른 자신이 악양루에 올랐던 고대의 영웅들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백이 황학루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거부하고 오직 황학의 부재에 책임을 돌리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서는 처음 2구로 봉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다음 2구에서 시간이 흘렀음을 표현하였다. <앵무주>에서는 처음 2구에서 앵무주의 이름이 앵무새에서 나왔음을 알리고 다음 2구에서 이 앵무주가 사라졌음을 알렸다. 모두 최호의 시보다 전하는 이야기의 세세함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그 상실의 압도적 기세 역시 최호의 시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나 짧은 4구 안에 같은 단어(황학, 봉황, 앵무)를 거듭 씌우으로써 시의 전개에 힘을 썼으니 이백의 이러한 중복 역시 최호의 시와 동일하다.

역대로 사람들이 비평한 이백이 최호를 모방한 부분은 주로 전반부에 모인다. 최호의 시의 전반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시를 못 쓰고 나중에 모방했다는 것이다. 최호의 시는 5,6구 또한 ‘歷歷’, ‘萋萋’로 글자를 중첩하고 對仗의 내용 구조를 반대로 배치하는 기교를 사용하였으나 이백의 시들은 일반적인 한시의 형태를 따르면서 <앵무주>에선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등금릉봉황대>에서는 거의 정확한 正對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시상의 전개에서 5,6구가 부근의 경치를 통한 감정의 증폭을 하고 마지막 2구에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은 최호의 시와 이백의 시가 같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한시가 비슷할 것이다.

최호의 <황학루>에는 황학루의 존재가 황학의 상실로 말미암았다는 강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폈던 15수의 이백의 시에서 이백이 황학루에 대해 언급할 때 이백 또한 황학루가 상실의 공간임을 인지하였고 시의 감정의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이백이 황학루로부터 느낀 상실감은 이백의 나이 30대 중반 이후로 이백시에 나타났으며 주로 이백의 만년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이백시에서 황학루의 존재가 천년 동안의 상실의 집합이라고 강하게 묘사된 적은 없었다. 이백의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는 황학루가 술잔치를 벌여도 슬픈 곳이라고 알려주지만 황학루 자체의 분위기는 여타 누대나 정자와 다르지 않다.

<등금릉봉황대>는 이백이 장안에서 쫓겨난 다음 금릉(남경) 지역을 돌아다니던 747년 즈음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등금릉봉황대>가 <황학루>를 모방

한 것이 확실하다면 최호는 <황학루>를 적어도 이백이 <등금릉봉황대>를 쓰기 이전에 지었을 것이다. 젊은 이백 역시 최호의 <황학루>에 담긴 황학루가 가진 강렬한 상실의 인상을 이전의 황학루의 설화나 또는 다른 이전 시인의 시를 통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감은 시인이 젊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종류의 것이다. 그런 이백도 정치적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외부세계의 알력 사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여전히 시종일관 이백은 모두 남의 잘못이고 자신의 잘못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 황학의 부제가 야기한 황학루의 상실과 이에 따른 많은 슬픔이 이백시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황학루>에서 제6구의 앵무주는 다만 황학루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의 하나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앵무주의 이름에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전해진다. 『太平寰宇記』에 따르면 앵무주는 東漢 때 江夏太守 黃祖의 아들 黃射이 그곳에서 잔치를 하다가 빈객으로부터 앵무새를 선물받은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sup>49)</sup> 잔치 자리에 참가했던 禰衡<sup>50)</sup>이 명을 받아 賦를 지었는데 이 부가 바로 <嬰鵠賦>이다. 그러므로 앵무주는 능력 있는 인재가 단지 윗사람의 오락용으로 취급당하다가 불행하게 결말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앵무새는 능력이 있으나 재주를 펼치지 못한 인재인 것이다. 최호나 이백이나 자신의 신세를 예형과 앵무새로 생각했을 것이다.

최호의 <황학루>에서 앵무주가 경치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이백이 보았을 때 황학루 건너편 앵무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sup>51)</sup> 그 증거가 이백이 <황학루>시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나머지 시가 <앵

49) 段寶林, 앞의 책, 304쪽.

50) 예형은 삼국시대 사람으로 그 재주가 뛰어났으나 솔직한 언사 때문에 윗사람이었던 曹操, 劉表, 黃祖에게서 차례로 배척받고 결국 황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예형의 <앵무부>는 그 대강의 내용이 아름답고 재주 많은 앵무새가 사람에게 잡혀선 날개를 잘리고 새장에 갇혀서 주인의 비위만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예형 자신의 불행한 인생 역정의 결말과 교묘하게 부합한다. 앵무새는 봉황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췄지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다.

51) 이백에게는 앵무주가 시의 중심 주제인 시가 한 수 더 있다.

무주>라는 점이다. 앵무주에 앵무새가 없다는 것은 황학루에 황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백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다. 이 시의 화려한 5,6구는 다분히 예형의 <앵무부>를 연상케 한다. 마지막 2구의 유배 간 나그네의 슬픔은 이제 사라져버린 앵무새의 슬픔과 연결된다.<sup>52)</sup>

최호의 <황학루>는 황학루와 앵무주가 모두 들어있는 상실의 시이고 이백은 이와 동일한 상실감을 바탕으로 <등금릉봉황대>를 지어 천자에게 갈 방도를 잃은 슬픔을 썼고 <앵무주>를 지어 자기 능력에 대한 애도를 나타냈다. 뒤에 이백이 술에 취했을 때 이백은 황학루를 부수고 앵무주를 뒤엎겠다고 주장<sup>53)</sup>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만년의 이백에게 황학루와 앵무주는 슬픔의 근원들이었다.

계유공이 전한 말이 정말 이백의 말이었는지 검증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sup>54)</sup> 그러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최호의 <황학루>의 서정은 중년 이후

<望鸚鵡洲懷禰衡>(759)

魏帝營八極，蟻觀一禰衡。黃祖斗筭人，殺之受惡名。吳江賦鸚鵡，落筆超群英。鏘鏘振金玉，句句欲飛鳴。鸞鸞啄孤鳳，千春傷我情。五岳起方寸，隱然詎可平。才高竟何施，寡識冒天刑。至今芳洲上，蘭蕙不忍生。

위나라 황제가 천하를 경영하였으니 개미처럼 여긴 이는 예형 하나뿐. 황조는 속이 좁은 사람 그를 죽이고 악명을 얻었다. 오강에서 앵무새를 읊었는데 글을 쓰자 군영을 초월하였다. 쟁쟁하게 금옥 소리 떨치고 구절구절이 날아서 울려고 했다. 맹금이 외로운 봉황을 쫓니 천 번의 봄이 지나도 내 마음 아프게 한다. 오악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으니 아픈 마음 어찌 누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재주가 높아도 끝내 어찌 펼칠까 식견이 부족해서 천형을 당했다. 지금까지 향기로운 모래톱 가에는 난초와 혜초가 차마 나지 않았다.

52) 이백은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에서 “도리어 예형 처사에게 부끄러우니 헛되게 앵무주를 대했다.(願慚禰處士，虛對鸚鵡洲)”고 하였다.

53) 나는 장차 그대를 위해 황학루를 부수 버릴 것이니, 그대 또한 나를 위해 앵무주를 엮어버리게.(我且爲君搗碎黃鶴樓，君亦爲吾倒卻鸚鵡洲)

54) 어쩌면 이백이 장안에서 추방된 뒤 10여 년 동안 황학루와 관련된 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최호의 <황학루>시에 깊게 감동한 탓일 수도 있다. 기록에 남지 않았으나 황학루를 찾았다가 최호의 시를 보았을 수도 있고 세상에 전해지는 최호의 시를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백이 최호의 시에 감동을 하고 최호에게 공감했다는 것이 현재 전하는 우스꽝스런 이백의 일화가 사실이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백의 정서와 흡사하다. 그래서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와 <앵무주>는 장소와 세부 소재에 차이가 있음에도 최호의 <황학루>와 그 감정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이백이 정말로 최호를 표절을 한 것이든, 또는 장소의 유사성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시상이 비슷한 표현까지 공유하게 된 것이든, 이백이 최호의 시에 공감했다는 것을 이백시들이 증명하였다. 물론 이백시의 가능한 표절과 모방이 “눈앞에 풍경이 있으나 말할 수 없으니 최호가 지은 시가 앞에 있구나.(眼前有景道不得, 崔顥題詩在上頭)”라는 계유공이 전한 말을 정말 이백이 한 말이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최호와 이백의 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나 이 말은 이백이 얼마나 최호의 시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 4. 결론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그곳에 자신의 시를 남기려다가 황학루에 쓰여진 최호의 <황학루>시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다음 <황학루>시를 모방해서 <등금릉봉황대>와 <앵무주>를 짓고는 <황학루>시와 자웅을 겨루려 했다’는 요즘 전하는 이야기는 이미 논했던 여러 가지 모순점들 때문에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는 본래 최호의 <황학루>시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는 이백에 대한 조롱거리로 쓰였다가 근래에는 황학루 건물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최호가 그의 시 <황학루>를 언제 썼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시의 내용과 최호 자신의 분명하지 않은 생평에 근거했을 때 그가 천보연간(742-755)에 상서사훈원외랑이 되기 이전에 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언제 상서사훈원외랑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백이 <등금릉봉황대>를 쓴 747년 보다는 먼저 썼을 것이다<sup>55)</sup>. 대략 735년에서 745년 사이의 어떤 해였

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백이 황학루와 관련된 시를 남기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최호의 <황학루>시는 시기적으로 젊은 시절의 이백이 썼던 황학루 관련 시와 노년 시절의 이백이 썼던 황학루 관련 시의 중간에 위치한다. 내용적으로 최호의 <황학루>시의 황학루는 청년 이백이 황학루를 신선이 학을 타고 떠난 신분 상승의 출발지로 본 것과 다르며 노년의 이백이 상실과 좌절과 실패의 장소로 황학루를 본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 만약에 이백이 최호의 <황학루>시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 영향은 이백이 황학루를 본격적으로 상실과 좌절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sup>55)</sup>

이백은 <등금릉봉황대>에서 분명히 최호의 <황학루>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영향이 단지 인상이 강하거나 표현이 재미있는 시작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백은 ‘황학루에 황학이 없다’는 <황학루>의 기원 설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실과 좌절의 원형에 공감하였다. 그래서 이백은 <등금릉봉황대>와 <앵무주>에서 이 모순된 상실감을 반복하였다. 황학루에 황학이 없어서 최호는 고향에 갈 수 없었고, 봉황대에 봉황이 없어서 이백은 황제가 있는 장안에 갈 수 없었고, 앵무주에 앵무새가 없듯이 이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백이 그의 시에서 황학루를 언급한 횟수는 다른 唐詩의 시인들 보다 많은 편이다. 특히 최호가 단 1수의 <황학루>시로 그의 시의 명성을 이룩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 전하는 15수의 황학루 관련 이백시는 그 수량이 훨씬 많다. 아울러 시의 내용적 다양성이나 문학적 성취 역시 최호의 작품과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의 황학루 관련 한시에는 황학루가 고대 문학의 범

55) 지금까지 아무도 최호가 이백의 <등금릉봉황대>보다 나중에 <황학루>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황학루>의 시적인 수준이 <등금릉봉황대>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계유공의 기록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나 이백이 먼저 썼다는 증거도 없고 굳이 이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최호가 먼저 썼다는 기존의 가정을 긍정하면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56) 이미 이백은 그의 30대 때에 <江上吟>과 <江夏送友人>에서 황학루를 상실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에서 가질 수 있었던 심상인 신선이 떠나간 장소, 성공을 위한 출발의 장소, 이별의 장소, 고향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장소, 술 마시고 잔치하는 장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황학루의 심상은 이백 자신의 인생 역정 및 연령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하며 이백의 시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호가 <황학루>시를 지었을 시기를 정확하게 판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시기는 마침 이백이 황학루와 관련된 시를 짓지 않은 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백의 인생에서 최초로 충격적인 좌절을 경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황학루의 문학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이백이 천 년의 상실과 좌절의 정서를 시에 포함한 최호의 <황학루>시에 공감했을 가능성은 크다. 이백이 비슷한 설화적 기원을 가지는 봉황대에 서 비슷한 정서를 지니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니 ‘이백이 최호의 <황학루>를 보고 황학루에 글을 남기지 않고 도망가서 <등금릉봉황대>와 <앵무부>를 지어 최호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비슷한 시기의 이백과 최호의 시의 정서와 표현의 유사성은 이백과 최호라는 시인 두 사람의 정서적 유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백의 황학루에 대한 인식 역시 최호의 인식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서용준, 「이백시의 화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이영주, 임도현, 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서울: 학고방, 2015.
- 이해원, 『이백의 삶과 문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다카시마 도시오 지음, 이원규 옮김, 『이백, 두보를 만나다』, 서울: 심산, 2003.
- A. 웰리 著, 이석호·장기근 역, 『달과 거울 속의 詩仙-李白의 詩』, 서울: 삼성출판사, 1985.
- 段寶林, 江溶 主編, 『中國山水文化大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 安旗, 『李白年譜』, 臺北: 文津出版社, 1987.
-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2000.
- 王琦, 『李太白全集』, 臺北: 華正書局, 1991.
- 詹福瑞, 劉崇德, 葛景春 等, 『李白詩全譯』, 石家莊市: 河北人民出版社, 1997.
- 詹鏜,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Abstract

### Study of the poetry of Li Bai refering to Yellow crane tower

Suh, Yong-jun

In China, There has been a tale fablous and privailing from ancient till now. It was a story about Li Bai and Cui Hao, both were famous classic chinese poetics. That old tale retailed a scandal of fablous poet Li Bai. According that story, Li Bai had visited the Yellow crane tower and had tried to leaving his poetry on that tower. But he happened to strike the poetry of Cui Hao, 'Yellow crane tower' already remaining on the tower, and he could not help leaving the tower without making poetry. He could not fogget this affair and had grudge on Cui Hao and his poetry without appropriate reason. Finally Li Bai had plagiarized 'Yellow crane tower' and writed his poems, famous but notorious for his plagiarism, 'Ascending Phoenix tower' and 'Parrot sandbank' to revenge his mental shame.

In spite of popularity of that story, it's just a kind of anecdote of tourist attraction now. But lthough this ridiculos rumor of scandal had no reliable ground but had many internal contradictions, that tale might have suggest that possible context of Li Bai's poetic mind. so that commitment of plagiarism signified the critical change of his point of view on the meaning and metaphor of Yellow crane tower in his poetry.

In Li Bai's youths, Yellow crane tower was a symbol of hope and success to him. It was a place from where the immortal had flied and ascended to heaven riding on yellow crane. but in his old stage, through many experiences of failure and frustration, he had realized that there had been no flying crane ever on that tower during his miserable life. Yellow crane tower had become an emblem of discouragement to him, that old poet. There has been no yellow crane riding him to heaven(meant the honor of high goenment position). It had been absent for almost 1000 years according to the exaggeration of Cui Hao. The absence of crane in Yellow crane tower seemed fateful to these ancient chinese poets, and that situation was equivalent to that absence of phoenix in phoenix tower and

absence of parrot in parrot sandbank, so the plagiarism made by Li Bai actually was an expression or a confession that Li Bai had fully sympathized with Cui Hao.

The literary image of 'Yellow crane tower' of the poem of Cui Hao could be located between those literary images of 'Yellow crane tower' of the poems of Li Bai as time advanced through his entire lifetime.

**Key words** : Yellow crane tower, Ascending Phoenix tower, Parrot sandbank, imitation and plagiarism, empathy, flying immortal, space of loss, literary hermit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